

The Developmental Policy Foundations of College and University Libraries in Korea

● 大會主題 發表論文

大學圖書館 發展政策의 基底

韓 相 完

崇義女專 圖書館長

1.0 머리말

우리는 현재 한국문화의 분위기에서 언제, 어디서나 쉽게 「정책부재(政策不在)」란 말을 들을 수 있다. 대학도서관이란 기관도, 한국교육과 문화계의 한 주요한 기능을 갖는 사회적 기관이라고 단적으로 인정한다면, 이 분야에서도 「정책부재」란 평가는 또한 당연한 것일 지 모른다.

그러면 과연 정책부재 현상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과학적인 현실 분석과, 예상되는 현상에 대한 합리적 내지 장·단기적인 계획 혹은 비전의 부재를 말하는 것이다. 비전이란 것은 개인 생활에 있어서 발전과 삶의 의미 부여, 그리고 풍요로운 전개를 위한 전제라는 개념뿐 아니라 인간이 관계하고 있는 모든 단체, 조직, 기관에서도 이것이 요청되며 바람직하다 함은 같은 논리이다. 정책의 부재, 바꾸어 말하여 비전의 부재 현상은 현재 우리 나라의 대학도서관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대학도서관 정책이 전무한 상태라고까지는 혹평할 수 없지만 정책의 수립이 시도되었다면 그 사항들에 대한 경과를 이 논고에서 다루려 한다. 그 경과를 국가적 태벨의 정책과, 전문가, 대학도서관 자체 내지는 전문직 단체에서의 정책수립 시도에 대한 것을 고찰하고, 이러한 현상분석의 바탕위에서 세워질 수 있는 대학도서관정책의 기저(基底)는 무엇인가에 대하여 전문직적 차원(專門職的次元)에서의 대학도서관 정책의 원리와, 또한 바람직한 대학도서관 정책수립을 도울 국가의 역할과 의무는 무엇인가에 대하여 논의하려는 것이 이 논문의 의도이며 범위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대학도서관 정책을 기조로 한 이상적인 대학도서관의 실상(實像)을 쟁취하기 위하여 한국의 도서관계에서 시도하여야 할 기초적이며, 추진력있는 활동과 전략은 어떤 것인가를 제언하려 한다.

결국 일련의 대학도서관 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문제

의 제기는, 대학도서관이 고등교육에서 국가사회를 지도할 증추적 인재를 길러내는 과정에서 점점 더 도서관의 존도와 활용이 필수적으로 요청된다는 현실적인 이유와, 학문 연구의 핵(核)으로서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활력을 불어 넣어 보자는 데 그 초점이 있다 하겠다.

2.0 대학도서관 정책수립의 경과

어느 나라에서나 특정한 부문의 정책은 일반적으로 헌장(憲章), 법(法), 법령(法令), 시행규칙 혹은 지시공문 등에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마련이다. 우리 나라의 경우에도 이런 관례는 적용되고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우리는 1963년 10월에 공포된 「圖書館法」과 1965년 3월에 공포된 「圖書館法施行令」 및 1966년 3월에 문교부령으로 제정 발표된 「圖書館法施行規則」을 갖고 있다. 또한 대학도서관 관계법규로서 「國立學校設置令」이 있고 「大學校設置基準令」에서도 시설과 자료구성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의 대학도서관에 대한 정책표현으로서의 관계법령은 그 나름대로의 당위성과, 대학도서관에 관한 국가적 인식의 정도를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일련의 법적 조치가 과연 한국의 대학도서관에 대한 정상적이며 발전적인 모체로서의 역할을 해 내기에 합당한 것인가에 있다. 이러한 타당성 문제의 제가와 비판, 개혁되어야 할 요점에 대한 지적은 이미 수차례 관계 인사들에 의하여 지적된 바 있으므로 본문에서는 이의 상세한 언급은 피하려 한다. 다만 이들 논문에서 언급된 요점들은 대개 4가지 점에서 크게 문제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 대학도서관 자료구성에 관한 규정이 이론적이고 적절히 규정되어 있지 못하며, 원시적인 수량적 조항으로 되어 이의 개폐가 불가피하며, 2) 대학도서관의 사서에 대한 전문직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배치의 적정수가 제시되어 있지 않고, 법적보호가 전연 없다는 점, 3) 대학도서관의 시설기준의 설정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고, 기준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 4) 대학도서관의 직제가 의무규정으로 명시되지 못하여 커다란 맹점을 지니고 있다는 문제가 그것이다.

이와 같은 심각한 대학도서관 부문의 정책부재 내지 부조리의 개선을 위한 제언과 비판에도 정부당국 특히 주무부서인 문교부에서는 분명하고 적극적인 반응을 보여준 바 없는데 이러한 무반응 현상이야말로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다만, 문교부는 「대학도서관 시설 기준령」을 연도별로 보충하여 1973년에는 100% 목표에 달성하도록 하는 「대학시설 연도별 보충 기준령」으로 시설 확충에는 관심을 기울여 연차적으로 이를 추진할 것을 전국 공·사립 대학에 시달한 바 있다. 또한 이의 집행과정 여부에 따라서 대학의 신설, 학과의 인가, 각 대학 정원의 증원, 학생 모집의 정지, 학과의 폐지, 그리고 학생 정원의 감축과 관련시켜 이 보충 기준령의 강력한 달성을 추진하였을 뿐, 법령 자체의 개정이나 정책의 변화를 명확히 시도하지는 못했다.

그러면 개개 대학도서관의 경우와, 전문적 단체인 한국도서관협회의 정책수립의 노력에 대하여 살펴 보려 한다. 일반적으로 개개의 대학도서관들은 도서관내에서의 방첩수립에서 비롯하여, 대학의 경영자의 시책, 교수·학생 등 이용층의 요구에 부응한 각 대학 나름의 대학도서관 운영정책을 수립하고 실천해온 과정과, 그렇게 훌륭하다고는 할 수 없는 현실적인 결과가 있을 따름인 것이다. 그러나 몇몇 대학에서는 두드러진 정책수립 시도의 예가 있는 바 그 대표적인 것이 서울대학교 종합화에 따른 도서관 종합화 방안을 위하여 동 도서관내에서 수차의 계획안과 의견이 제출된 사례라 하겠다.

이러한 국립대학교의 별개의 예외적 사실을 제외하고는 국내에서 눈에 띄는 종합적이며 장기적인 도서관 정책수립의 예는 별로 찾아 볼 수 없는 터이다.

그 다음 전문적 단체의 대학도서관 정책에 대한 시도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한국도서관협회에서는 대학도서관에 대한 명문화된 정책성명이나, 협회 공식기구를 거친 종합적 의견서 등을 제출한 바 없음을 심히 유감으로 여길 수 밖에 없다. 다만 매년 개최하는 전국도서관대회에서 부회별로 연구발표를 갖고 관종별로 토의된 쟁점을 문교당국과 사회 관계 기관에 건의된 단편적인 사항만 있을 따름인 것이다. 1962년 제1회 전국도서관대회에서부터 1973년 제12회 대회까지, 대학도서관과 관련된 30여항의 건의가 한국도서관협회의

공식적 문서로 남아있다. 이 문제는 결론 및 제언에서 언급하겠지만 협회는 적극적인 대응 정책을 천명할 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3.0 대학도서관 발전 정책의 수립

정책 수립의 기저는 정책 목적이 무엇이며, 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방법론적인 단계와 이론적 체계를 제시함에 있다고 본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 나라의 대학도서관은 고등 교육을 위한 교육의 장(場)으로서 그 기능을 발휘하고 있다면, 과연 그 궁극적 목적은 무엇인가에서부터 살펴 봐야 할 것이다. 특히 우리 나라와 같은 개발도상국의 최대 목표는 물론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일이며,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각계 각종의 정부활동 혹은 사회활동에 활용할 인적자원을 더 많이 시의에 알맞게 배출하고 그 자질을 향상시키도록 모든 노력을 집중시켜야 할 것이다. 대학이 사회에서 요구하는 유용한 인물을 배출할 수 있는 능력은 유능한 교수진과 훌륭한 학생에 달려 있을 뿐만 아니라 대학사회의 모든 구성원으로 하여금 사회가 수세기에 걸쳐 축적해온 기록된 지식을 어느 정도 직접 접근할 수 있기 마련해 주는가에 달려있으며, 이러한 기능의 수행은 전적으로 대학도서관이 해야 할 과제인 것이다. 인적자원 개발이 대학의 주요한 기능임에는 틀림없으나, 참다운 대학이란 지식을 보존하고, 해석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존재하며, 이러한 대학기능의 발전 또한 대학도서관의 중요한 임무이며 목적인 것이다.

3.1 전문직적 차원에서의 대학도서관 정책기저의 문제점과 원리

대학도서관의 목적이 뚜렷해졌다면 이를 근거하여 대학도서관 경영 정책의 기저가 될 수 있는 요소는 다음과 같이 8가지로 대별하여 볼 수 있을 것이다.

- 1) 기획(planning)
- 2) 목표 및 요구(objectives/requirements)
- 3) 운영(operations)
- 4) 조직(organization)
- 5) 인사(staffing)
- 6) 시설(facilities)
- 7) 재정(financing)
- 8) 도서관 상호협동(institutional arrangements)

이러한 8가지 요소를 어떻게 대학도서관의 기능을 가장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정책으로 입안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제 전문적인 차원에서 대학도서관 정책의 기본 요소가 될 각부문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를 해보려 한다.

3.1.1 기획정책

대학도서관의 발전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부문이 기획에 관한 정책을 세우는 일일 것이다.

기획정책의 수립에 일어나는 일반적인 문제는 다음 세 가지를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첫째, 기획정책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대학도서관은 기획을 하는데 있어서 포괄적이거나 장기적인 배려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둘째, 대학전체의 기획과 대학도서관의 기획이 잘 연결되지 않는 것이 문제인데, 이는 기획정책에서 지양되어야 할 문제이다.

셋째, 대학도서관의 기획은 효율적인 기획에 대한 기술을 살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방법은 1)대학의 교육적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대학도서관의 역할과 요구가 반영된 기획정책을 수립하고, 2)대학도서관의 목표와 계획은 대학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이어야 하며, 3)도서관 자원 즉 재정적, 인적, 도서관 자료, 그리고 시설 등이 계획에 조화롭게 관련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3.1.2 목표 즉, 요구에 관한 정책

대학도서관이 지향해야 할 초석을 마련하는 과정이 바로 목표 즉, 요구에 관련된 정책 설정이라 하겠다. 일반적으로 대학도서관의 목표 즉, 요구의 문제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결함을 갖기 쉽다. 1)대학의 목표가 특별히 대학도서관과 관련하여 보면 명확하지 못하거나 미흡하게 설정되어 있다. 그러므로 분명하고도 보다 구체적인 대학도서관의 역할이 대학의 목표중에 설정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2)대학도서관이 흔히 훌륭하게 정의된 목표를 세우고 있지 못하다. 이 문제는 뚜렷하고 조리있으며, 분류된 목표를 설정해 놓는 대학전체의 노력이 요청되는 것이다. 3)대학도서관의 장서와 봉사가 교육 프로그램을 위한 필수 요건이라는 점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4)대학도서관은 봉사와 장서에 대한 요구사항에 대해 적절한 평가 방법을 갖고 있지 못하다. 5)대학도서관 봉사에 중요한 비교적인 기초위에서 만들어진 통계물 수집하고 응용하는데 게으르다고 진단할 수 있다. 그러므로 대학도서관 프로그램은 비용대 효과(cost effectiveness)의 관점에서 짜여지고, 대학 프로그램의 요구에 알맞도록 그 목표가 융통성이 있으며 최선의 것이 설정되는 정책을 취하여야 할 것이다.

3.1.3 운영정책

대학도서관의 건전한 운영의 과정은 기획, 예산, 조

정 및 평가를 위한 운영 정책에 직결된다. 그런데 이러한 운영 정책에 직결된다. 그런데 이러한 운영 정책에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으며 이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정책의 수립이 요청된다.

1)운영정책은 성문화되어 있지 않고 또한 경영지침으로서 사용되지 않는다. 2)대학과 대학도서관은 일반적으로 포괄적이며, 프로그램에 맞춰 짜여진 예산제도(program-oriented budgeting systems)를 채용하고 있지 않다. 3)도서관에 일상적이며 반복되는 업무를 위해 채용된 직원의 능률 향상을 위한 기회를 마련하고 있지 못하다. 4)도서관 운영에 있어서 자동처리 체계(Automatic Data Processing; ADP)를 대학도서관이 채용하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대학도서관 적절한 운영정책, 체계(system), 처우요령 등을 성문화 해 놓을 정책적 배려가 바람직하다.

3.1.4 조직정책

도서관의 조직은 대학의 프로그램이 목표하는 바를 성취시키기 위한 직원들의 봉사를 위한 재능과 에너지를 적절히 발휘하게 하고, 지휘하며 목표에 초점을 맞추기 위한 기본적인 경영의 수단인 것이다. 그런데 대학도서관은 이러한 기초 원리에 도달하는 조직정책상의 문제점을 안고 있는 바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현존하는 대학도서관의 조직 계획은 요구에 대한 분석의 결과나 선택적인 배려라기 보다는 점차적으로 발전되는 결과에 짜여진다. 2)대학도서관의 최고 경영 그룹은 대학의 조직 구조내에 있어서 분명하고 적합한 기준을 갖고 있지 못하다. 3)대학도서관은 중간관리자가 너무 적기 쉽다. 4)조직편람과 직무기술서가 없는 경우가 있고, 있다 하여도 매일의 업무운영 일과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조직에 있어서, 문제점들은 분명히 모호성을 배제할 명문화된 조직정책을 세울 필요성이 있다 하겠다.

3.1.5 인사정책

인사정책은 가장 중요한 대학도서관 경영정책이며, 특히 전문사서직이 봉사해야 하는 점에서 더욱 중요한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한 일반적인 대학도서관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고 분석된다.

1)인사의 전문적으로서의 채용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발전되지 않고 또 사용되고 있지 않다. 2)도서관 사서의 교육 프로그램이 현장의 요구에 비하여, 특히 경영기술과 관련된 부분이 적합치 못하다. 3)도서관의 현직 직위가 고도의 교육을 받은 즉 주제별 및 도서관학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받은 주제전

문가(subject specialist)나 다른 전문사서에게 적합하지 않은 현상이다.

이러한 문제는 대학도서관 발전에 있어서 가장 커다란 장애물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이런 현상을 극복하기 위하여는 1)대학 및 연구도서관의 전문사서직의 발전은 사서의 주제배경과 도서관학 배경이 모두 대학원교육 수준이나 그 이상이어야 하며, 현행 한국의 사서교육제도는 내용과 학계가 개혁되어야 바람직하고, 2)전문사서가 배치되는 것이 대학 및 연구도서관을 발전시키며, 3)전문사서로 구성된 전문직 단체의 조직은 전문사서직 발전에 있어서 큰 요인이 될 것이며, 4)도서관학 및 사서라는 명칭의 변경은 전문사서직의 전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믿으며, 이러한 기저 위에서 대학도서관의 인사정책이 수립되어야 마땅할 것으로 생각한다.

3.1.6 시설정책

일반적으로 모든 대학도서관들은 최근의 등록학생수의 증가, 장서의 증가, 봉사량의 증가에 따르는 물질적인 팽창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는 경향이다. 이러한 대학도서관시설에 관하여 발생하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1)대학도서관에 있어서의 스페이스의 부족은 계획된 시설이상으로 급격한 부족 현상을 나타내며, 2)장서의 소장 장소와 시설의 위치에 관하여 대학내에서 의견이 엇갈려 있다. 3)대학도서관은 정기적으로 스페이스의 정상적인 사용에 대하여 절감하지 않고 있다.

대학도서관 시설을 유지하고 팽창시켜 나아감에 있어 그 기본정책은 위의 3가지 문제점을 해결하는 선에서 세워지고 고려되어야 한다.

3.1.7 재정정책

도서관의 재정은 점점 더 복잡해 지고, 도서관 프로그램과 봉사를 위한 다각적인 기금의 확보와 발전을 하여야 할 처지에 있다. 이러한 재정정책의 수립에 있어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대학도서관과 대학 행정과의 사이에 상호 기대하는 것이 균형이 안 맞는다. 대학 총장과 도서관장 사이에 고등교육이 당면한 재정적 곤란과 그들의 미래 도서관의 재정적 뒷받침의 응용방법에 있어서 의사소통 및 이해의 결핍이 노출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대학과 대학도서관은 근본적인 기획의 문제에까지 소급되는 의사소통의 효율화와 상호이해의 촉진을 통한 보다 밀접한 의견을 토대로 한 재정정책의 수립에 노력해야 될 것이다.

3.1.8 도서관간의 상호 협동정책

대학도서관의 상호 협동정책은 도서관 비용의 증가, 팽창의 지속, 값이 오르는 장서의 복본문제, 학자들의 복잡하고 전문적인 정보봉사에 대한 요구의 증대들의 요인으로 인하여 점점 더 그 필요성과 중요성이 증가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의 도서관 상호협동 정책을 세우는데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은 다음과 같다.

1)어떤 문제를 우선적으로 상호협동할까에 대하여 도서관들 사이에 의견이 일치되고 있지 않다.

2)대학도서관장과 대학 책임부서의 인사들이 도서관 상호협동이 도서관의 재정을 아낀다는 사실과, 개개 학자들의 연구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에 대하여 적당한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하다.

결국 한 대학도서관이 아무리 훌륭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 전체적인 자원을 갖고 다양각색의 요구와, 정도의 차이가 있는, 다양한 도서관 및 정보봉사를 요구하는 현대의 학문공동체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도서관의 상호협동은, 특히 대학도서관 건물물자유로 드나들며 소장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협동문제, 서지를 협동하여 편찬하는 협동문제, 도서선택구입 협동문제 및 운영의 협동문제 등의 범주에서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차원에서 이 문제의 정책수립에 커다란 관심을 기울여야겠다는 것이다.

3.2 대학도서관 정책 수립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과 의무

정부는 대학을 설립하고 통제하는 권한과 함께, 국가이익을 위해 그 발전을 진작시킬 의무도 지니고 있다고 전제 한 겔펀드(M. A. Gelfand)의 논리에 사족을 붙일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정부가 행사하는 통제의 정도는 대학이 지닌 자치의 정도에 영향을 미침은 두말할 나위도 없고, 정부 통제의 성격과는 상관없이 적절한 입법조치를 통해서, 대학외부의 행정조치에 의해서 정부의 기능과 의무를 발휘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기능은 대학도서관 정책 수립과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여기서는 정부가 국공립, 사립대학의 도서관을 막론하고, 어떻게 법적, 행정적조치를 통하여 이의 발전과, 보호, 올바른 운영을 기할 수 있게 역할을 담당하며, 그 의무는 어떤 것인가에 대하여 서술하고자 한다.

이미 서론에서도 언급했지만 대학도서관에 대한 우리 나라 정부의 시책은 몇 가지의 극히 형식적인 법규와 시책을 제외하면 거의 정책부재라고 말할 정도의 한심한 상태이다. 왜 이러한 결과밖에 갖고 있지 못하나

하는 문제는 다각적인 면에서, 구체적인 원인 분석과 비판이 필요하겠지만 요약하여 이를 지적해 보면 커다란 태두리의 문화정책과 대학 발전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의 부족과, 경제발전 우선 정책에 밀려 정신문화 진흥정책이 희생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 여건에서도 정부가 감당할 수 있고 또 마땅히 감당해 내야만 할 의무를 지닌 대학도서관 정책에 대한 필수적인 사항들을 제시하여 이 나라의 진정한 대학발전이 본 궤도에 갈 수 있도록 촉구해 보려 하는 것이다.

우선 포괄적으로 국가에서 담당해야 할 역할에 대하여 고찰해 보면 다음과 같은 논점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1) 정부는 「전국 도서관 및 정보학에 관한 자문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상설위원회로 구성하고 창립하여야 할 것이다. 「전국 도서관 및 정보학에 관한 자문위원회」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일에 대하여 연구, 조사 및 토론을 통하여 그 위원회의 임무를 행할 수 있어야 한다.

(1) 학문적인 연구를 위한 자원으로서 지식의 배분을 위한 센터로서, 전국정보체제(National Information System)를 전개시키는 요소로서의 도서관이 갖는 역할에 대하여 포괄적인 연구, 평가를 하여야 하며,

(2) 도서관의 역할과 효과적인 이용을 수행하는 정책, 계획, 공공기관의 실용 및 사립기관과 단체들을 평가하는 일,

(3) 정부의 재정지원을 포함한 도서관의 재정은 효과적이고 충분한 유용성을 갖는 도서관과 도서관 봉사를 위하여 어떻게 지원하는 것이 좋은가를 평가하고,

(4) 정부, 사립기관과 단체가 국가를 위하여 효과적이며 충분한 도서관체제를 계속적으로 계획하는 조치를 위하여 적절한 대안을 개발하는 일 등을 행하여야 한다.

2) 국공사립 대학도서관을 비롯한 공공, 학교도서관에 정부는 과감한 재정지원을 지속적으로 하는 정책을 세워야 한다.

그리고 특별히 대학도서관을 위하여 정부는 「대학보조금 위원회」(University Grants Committee)를 설립하여 대학의 학문적 발전과 그 결과에 따른 국가의 이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대학도서관을 재정적으로 그 일부를 지원해 줄 수 있을 것이다.

3) 문교부 내에 도서관, 정보센터 및 이들의 전국조직망과 체계의 형성과 발전을 위한 전담부서인 도서관국을 신설하여 각종 도서관 및 대학도서관의 문제를 전담하는 「정부조직법」을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 부서는 실질적으로 다음과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신설의 이유가 있는 것이다.

(1) 도서관 봉사계획을 기획하고 평가하는 방법과 기준을 개발하는 일

(2) 도서관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와 경험을 자극시키는 일

(3) 도서관과 정보센터의 전국 규모의 조직망(network)을 발전시키는 일.

(4) 도서관에서의 연구조사의 발전책에 관한 일

(5) 공공도서관을 진흥시키는 일

(6) 도서관의 전문사서의 부족을 타개하고 고도화시키는 일

(7) 도서관의 필요성과 봉사에 대한 공공의 이해와 지원을 진작시키는 일

(8) 국가 레벨의 도서관 정책의 상호연관성과 조정을 꾀하는 일

(9) 국립·시·도립도서관, 군립도서관 및 사립도서관의 업무를 격려하고 지원하는 일

(10) 대도시의 도서관과 국가간의 협동을 통한 도서관 발전을 진작시키는 일

(11) 도서관의 이용과 이의 발전이 경제개발에 직결되며, 이의 실천만이 민족의 발전을 유지할 슬기과 정보의 원천이란 점의 사회에 대한 궤도를 하는 일 등이 다.

4) 대학도서관을 비롯한 도서관 전문직의 발전을 조성하는 일은 정부의 의무이다. 다양하고 변화하는 도서관의 기능을 다 하기 위한 적절히 훈련된 전문사서의 공급과, 신분 및 역할의 증진을 위한 국가의 제도적 뒷받침과 배려는 시급한 것이다.

5) 시설, 장서 및 대학도서관 봉사의 표준화를 시도하여 이에 대한 기준을 제정하므로써 대학도서관 내실을 기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한다.

6) 끝으로 도서관법의 전면 개정이 현재 정부가 도서관 문화의 발전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종의 의무이며 동시에 기대되는 조치이다.

4. 맺음말과 제언

우리 나라의 대학도서관 정책을 포함한 도서관 정책이 과연 존재하고 있는 것인가를 문제의 제기로 하여 이 논고를 시작하였다. 본문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형식적인 도서관법 및 시행령이 있고 기타 법령 및 정부의 시책에서 일말의 대학도서관 시책이 있었음을 밝혔고 그것은 정확하게 표현하면 거의 정책부재의 상황임을 비판하였다.

문제의 전개가 이러한 현실에서 이제 정부 및 도서관 전문단체에서 행하여야 할 일은 무엇인가? 그것은

냉철하게 긴 안목을 갖고 대학도서관의 발전의 기저가 되는 도서관 정책이 어떤 것인가에 대하여 살펴 보고, 어떻게 대처하여야 할 것인가를 함께 숙의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받아들여 국가 수준의 대학도서관 정책을 세우고 실천에 옮겨야 하는 의무가 남아있을 뿐인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전문진적 차원에서 대학도서관 정책을 세우는데 있어서 현장 분석을 통한 문제점을 기획, 목표 즉 요구, 운영, 조직, 인사, 시설, 재정, 그리고 도서관 상호협동의 8가지 관점에서 자세하게 제시하였으며, 대학도서관에 대한 정부의 역할과 의무에 대해서도 서술하였다.

끝으로 이러한 논리적 대학도서관 발전정책의 기저를 중심한 이론을 실천할 방법론의 첫 단계로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므로써 이 글을 끝맺으려 한다.

현재 한국도서관협회 정관 제26조항2에는 「대학도서관부회」를 두기로 되어 있으나 아직도 그 구성이 되지 않고 있으며, 그 기구와 유사한 기구가 있을 뿐일은 주지의 일이다. 그런데 이러한 유사기구를 모체로 하든, 전혀 새로운 차원에서 구성되든 이 시점에서 「대학도서관부회」가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믿는다. 이 부회는 매년 전국도서관대회에서 총회도 겸하며 이 부회 내에 대학도서관 발전을 위한 필요한 상설위원회를 둘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필요한 때에 융통성있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보다 더 생동적인 전문단체가 될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작업은 많은 시간이 걸려야 해결될 것이므로 이와 비슷한 대안을 내야 될 것인 바, 그 현실적인 방법으로는 대학도서관 분과회에서 당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몇몇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결의하여, 그 위원회에 주어진 과제를 연구할 수 있도록 하고, 연구된 안은 한국도서관협회 전문위원회와 동 이사회를 거쳐 협회의 공식성명으로 강력하게 정부 및 각 대학 경영그룹에 그 실행을 촉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모든 대학도서관 발전정책에 관한 기저가 무엇인가의 논의는, 이 민족의 지도자를 양성하고 학문의 연구를 심화시켜 민족문화와 세계문화의 진보에 기여하며, 그 중핵의 소임을 맡고 있는 대학이 진정으로 대학다위지기 위해서는 대학도서관이 바람직한 비전(vision), 즉 정책을 갖고 있도록 하여야하며 그것을 토대로 대학도서관이 발전하고 진전된 전 도서관 봉사체를 대학사회(academic community)에 다시 되돌려 주는 과정이 절실하다는 것을 논증하기 위한 하나의 이론적인 시도인 것이었다.

各 圖 書 館 必 携 的 參 考 文 獻

R. R. BOWKER COMPANY

BOOKS IN PRINT: Author Index: Title Index 1974. 4 vols
SUBJECT GUIDE to Books in Print 1974
Ulrich's INTERNATIONAL PERIODICALS DIRECTORY, 15/e
IRREGULAR SERIALS AND ANNUALS, 3/e

MARQUIS WHO'S WHO INC

Who's Who in America, 38/e
Who's Who in the World, 1/e

BURT FRANKLIN

Courant, M.	Bibliographie Coreenne, 3 vols	\$ 90.00
Howorth, H. H.	History of the Mongols from the 9th to the 19th Century 4 vols.	\$ 200.00
Kerner, R. J.	Northeastern Asia, a selected bibliography: contributions to the bibliography of the relations of China, Russia, and Japan, with special reference to Korea, Manchuria, and eastern Siberia, in Oriental and European languages. 2 vols	\$ 67.50

敝社에서는 上記 出版物의 韓國總販으로 註文을 拜受하고 있어오니 많이 利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株式會社 汎文社

서울 鐘路區 鐘路 1 街 40 電話 (72) 5131-33